

정동영 조기 복당 꼬이네

친노 386 '先사과' 요구... 설 이전 복당 장담 못해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미 1월 이전 복당은 물 건너간 상태로 설 이전 복당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정 의원의 복당이 지체되는 것은 친노 386의 반발과 당 지도부의 우유부단 때문이다.

정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은 지난 12일, 1월 복당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애초 복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지난 22일의 당무위원회는 안전으로조차 오르지 못했다.

다음 당무위는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어 1월 복당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다음달 2일에도 정 의원

의 복당이 안전으로 오르기는 힘든 상황이다.

친노 386 등 당권과 일부가 '선(先)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 의원이 재보선 과정에서 친노그룹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먼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게 친노 386 일각의 주장이다.

그러나 복당 문제를 무작정 미룰 경우 당내 분란만 심화할 수 있어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지만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 측과 긴밀히 조율해 복당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만간 정

의원 측에 메시지를 보내 '적절한 사전조치'에 대한 물밑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도 이러한 기류를 전해 듣고 사과 또는 유감 표명 수위와 방식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당 윤리위가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정 의원을 지원한 전북지역 인사들에 대해 해당행위 책임을 물어 곧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복병'으로 떠올랐다.

현재 윤리위에 회부된 인사들은 전 북도의회 및 시의회 관계자 등 28명으로, 이 가운데 징계 대상은 7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위 징계 방침을 두고

비주류 측은 "통합하자는 마당에 정 의원을 도운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이중배반적 '보복정치'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 의원 측도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실제 윤리위는 지난 26일 이와 관련, 회의를 소집했지만 징계의 적절성과 그 수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내달 2일 다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당 관계자는 28일 "복당 시기는 정 의원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렸다"며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복당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박 '세종시 보이콧' 본격화

초청 강연회 등서 비효율성 강조 정총리 초청 오찬 무더기 불참도

친박(친박근혜)계가 세종시 수정 반대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수도권 지역 당원협의회가 주최한 초청강연회에 참석, 당원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수정안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국정보고대회 개최의 순연을 검토하는 등 주류 측의 세종시 수정 강행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친박계 좌장격인 6선 출신인 홍사덕 의원은 지난 26일 한나라당 안산시 상록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송진섭) 초청으로 강연회를 가졌다.

홍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원안+알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선을 의식한 계산된 언급"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믿음·신뢰·신의·약속이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운찬 총리가 27일 삼청동 공

관에서 연 대구·경북지역 의원 초청 오찬에 친박계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했으며 때문에 애초 28일 예정됐던 부산지역 의원 초청 오찬은 내달 3일로 연기되는 등 정 총리의 당내 소통을 위한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수정안 당론 변경이 주류 측에 의해 추진되는 마당에 오찬 참석은 자칫 정치적으로 틀러리를 설 수 있다는 게 친박 측 판단이다.

시·도 순회 개최중인 국정보고대회 친박계가 위원장인 대구·부산·인천시장의 경우 연기 내지는 대회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반쪽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성 정치네트워크’ 출범식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와 예비 여성정치인 등이 참여한 '2010 지방선거 광주·전남 여성 정치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8일 오전 광주시 서구 능성동 광주 여성단체회관 4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좋은 여성 후보 발굴 및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당, 참여당 '문전박대'

이재정 대표 면담 거부

국민참여당이 민주당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가 여야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을 잡고 있으나 "명분없는 창당"이라며 비판한 민주당이 사실상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참여당

은 지난 25일부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좀처럼 시간을 내주지 않아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참여당은 제1야당을 먼저 찾는 것이 도리라며 이미 일정을 잡은 다른 정당과의 면담마저 지연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불쾌한 표정이다.

참여당 관계자는 "과거 인연도 있

는데다 제1야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20~30분의 시간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러면서도 말로는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거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추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를 예방하고 29일에는 민주노동당을 방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해'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 신화용 대표비서실장은 "이재정 대표와의 만남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종시 문제로 지역 일정이 많아 정 대표와의 면담을 마지막에 하자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두 당의 대표가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의 가치'와 '민주진영의 적통'을 놓고 미묘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관람 원스톱 서비스 합니다

헌정기념관내 방문자센터 설치

국회사무처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국회를 위해 헌정기념관내에 국회방문자센터를 설치, '국회 관람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회 본회의장 참관과 헌정기념관 관람이 별도의 예약을 통해 이뤄졌으나, 내달 18일 방문자센터가 가동되면 국회 관람

객은 한번의 절차로 본회의장 참관 및 헌정기념관 관람이 가능하다.

방문자센터에는 헌정전시관과 의정체험관 외에도 국회가 배출한 대통령관, 국회의장관, 어린이 체험관, 홍보영상관, 식당, 기념품점 등이 들어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 국회의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곳곳에 전문 안내요원과 전기자동차를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의 내에 80㎡ 규모의 '국회알림마당'을 마련,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국회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강운태·김성곤의원 '최우수'

이낙연·박주선·김재균의원 '우수'

민주당 강운태(광주 남구), 김성곤(여수 갯)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의원 5명이 제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김지원·이하 실천본부)는 28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신뢰위기와 소통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따뜻한 책임약속 선언과 감동적인 실천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국회의원 부문에서 강·김 의원이 최우수상을, 이낙연(영광·함평·장성군), 박주선(광주 동구)·

김재균(광주 북읍) 의원이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는 올해 약속대상 심사에 있어 ▲18대 총선 공보물에 실린 공약 처리상황 ▲18대 총선 의정활동계획서(미발표의원인 경우 의정활동계획서를 기준) 이행현황 ▲국회의원 홈페이지 상의 공약실천내용 유무 및 공약실천정보의 접근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시상식은 실천본부 주관으로 내달 4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주지출공고)

한국건설 주식회사(이하 "간")와 신영전기 주식회사(이하 "합병대상")는 2010년 1월 28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간]은 그 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부문)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이 합병하고 [합]은 관세청의 신고와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분할계좌를 승인함으로써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이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바라기며 이에 공고함.

2010년 01월 29일

〈간〉 한국건설 주식회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동리 97-133
대표이사 정경준

〈합〉 신영전기 주식회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48-2
대표이사 정순우

판결공시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고단 1284 내지 1304

사건명: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수양풍산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은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0년 1월 27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사 안상원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10년 1월 28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을 주식 20주로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 500원의 주식 1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 부터 1월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9일

주식회사 푸른중공업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전리 1697-5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바다공인중개사

☎ (063)581-5909
☎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 펜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150평 건물 120평 : 매가 6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000만원 이상 발생
- 용자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화.

▶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급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밤조제 개항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다산공인중개사

☎ 010-7154-6996
☎ 062-972-8004

▶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177평, 건물 740평 - 매가 30억
보증금 16억/월세 750만/용자 6억

▶ 상가매매(첨단)
• 아파트 5000세대 앞 1층 48평 - 매가 12억
권장업종: 의류, 편의점, 민영, 푸드

▶ 창고및 공장용지
• 서구 벽진동 184평 - 평당 140만
• 서구 덕흥동 900평 - 평당 85만
• 서구 우산동 550평 - 평당 65만
• 광산구 수완동 900평 - 평당 100만

● 구 합 ●
• 골프 연습장 부지 -광주권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 창고부지
• 공시지가 50%미만 부동산
• 투자용 부동산

부동산 매각, 상속, 임대 등에 관하여 무료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계좌제·재직자)
국비교육생모집

Js퀴진 요리학원

노동부지정 국비 훈련기관

●●● 방문상담 대 환영 합니다! ●●●

훈련종류	훈련과정	훈련대상
계좌제	• 한식과정 • 일식과정	주부,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졸업 예정자
재직자	• 한식과정 • 양식과정 • 일식과정 • 중식과정 • 제과·제빵과정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정규직·비정규직)

* 계좌제 과정은 광주고용센터(609-8500)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담전화 ●
226-5500

위치: 요리학원
화원가
구: MBC
장동로터리 전남 광주
여고 여고 전파국